

김 순 일

분과모임을 마치고 교수문건을 정리하고 나서 나는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 퇴근길에 올랐다.

걸음을 옮기며 줄곧 편집부에 올려보낼 작품의 상을 잡느라 골똘하던 나는 확- 불어오는 바람결에 시원한감을 느끼며 생각에서 깨어났었다.

머리를 들고보니 어느새 새로 꾸려놓은 피현천기슭의 공원에 다달았음을 깨달았다.

미끈하게 쪽 뻗어나간 포장도로 량옆에 빛을 뿌리는 환한 가로등이며 현대적미감을 자랑하며 솟아오른 건물들마다에서 반짝이는 불장식으로 황홀경을 펼쳐놓은 고향땅의 밤전경은 나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이게 하였다.

만리마시대에 발맞추어 날에날마다 달라져가는 고향땅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흥그러워지는 심정을 억제할길없어 사람이 산다는게 이런 멋에 사는가 하는 생각이 자주 떠오르곤 한다.

그도 그럴것이 조기작업과 야간작업으로 근체육관건설과 도로포장작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친 추억이 이 변모된 창조물들에 자신의 땀방울도 스며있다는 일종의 자공심에 잠기게 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그 어떤 글감을 잡을수 있지 않을까 하여 사색에 잠겨있는데 문득 《우리국어선생님이시다.》, 《응, 그리구 선생님은 작가선생님이거던. 요전날 우리 담임선생님에 대해 쓴 글을 너희들도 보지 않았니. 그렇지요, 선생님.》하고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들러보니 내가 들어가 수업을 하곤 하는 천빈이, 호범이, 미래, 영주를 비롯한 초급중학교 2학년학생들이었다.

《오, 너희들이구나.》

나는 아이들의 손목들을 량손에 잡아 공원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천빈이 말도 맞고 미래 말도 맞단다. 너희들앞에 나서서 수업을 할 땐 선생님이고 또 너희 담임선생님처럼 훌륭한분들에 대한 글을 쓸 땐 작가로도 되고, 허허...》

얼마전에 교수사업에서 모범이 되어 평판이 자자한 우리 학교 한 교원에 대해 쓴 수필이 《청년문학》잡지에 발표된것을 상기하며 내가 이렇게 말하자 천빈이는 《야, 국어선생님은 대단하시네. 난 우리 아버지만 대단한줄 알았는데...》하고 내 팔을 흔들며 어리광부리듯 말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도 다 대단한분들이지. 그래 부모님들은 어떤 자랑을 안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묻자 아이들은 겨끔내기로 한마디씩 하였다.

《이 도로 량옆에 세운 가로등은 우리 아버지가 연구해서 설치한것인데 대낮에는 해빛에 충전되었다가 어두워지면 저절로 불이 켜져 1년열두달 밤마다 불이 켜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만 저기 보이는 등근 지붕의 체육관설계를 잘했다고 중앙에까지 당선되어 칭찬을 받았습시다.》

《선생님, 우리 삼촌은요 도로포장작업에 기업소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돌격대를 무어가지고 공사를 앞당겨끝낸 자랑을 안고 제 5차 세포위원장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자랑타랑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나는 말했다.

《그래그래, 그러니 몰라보게 달라지는 고향땅의 모습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삼촌, 형님, 누나들을 비롯한 고향사람들의 지혜와 열정, 땀과 노력이 깃들어있겠구나. 그들의 땀방울이 보석이 되어 가로등과 불장식들

에서 빛을 뿌리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속삭이는것 같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슬쩍 화제를 돌리자 지금껏 떠들던 아이들은 두눈만 깜빡이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잠시후 《아빠엄마들의 자옥에 우리도 따라서라고 합니다.》, 《고향땅을 사랑하고 자기것을 바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힘으로 더 멋있게 꾸려가라고 합니다.》라고 저저마다 대답했다.

《옳다. 우리모두에게 자기 지식과 열정을 바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고향땅을 빛내가자고 속삭이고있단다. 그러니 언제나 공부에 열중해서 고향땅을 꽃피울 희망을 간직해가야지.》

그러자 아이들은 승벽내기로 말했다.

《선생님, 전 도로바닥이 몽땅 환한 불이 켜지게 하여 오가는 자동차들이 전조등이 없어도 되게 하겠습니다.》

《저도 엄마보다 더 훌륭한 설계기사가 되어서 우리 고향에 내 손으로 50층, 10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저저마다 자기들의 꿈을 터놓는 아이들을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좋습니다. 아니, 장합니다. 이 선생님도 자기 고향땅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우리 고향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자기 손으로 고향땅을 더더욱 꽃피워나가려는 동무들의 소중한 꿈을 모두 작품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대신 동무들은 자기들의 꿈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예!》 하고 씩씩하게 대답을 한 아이들은 《야, 좋다.》, 《우리 국어선생님 제일이다-》 하고 손뼉을 치며 떠들어대더니 손에 손을 맞잡고 가로등 환한 도로를 따라 짱총거리며 뛰어갔다.

귀염성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날마다, 시간마다 달라지는 고향땅의 모습은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의 가슴마다에 얼마나 소중한 꿈을 자래우고있는가. 아버지, 어머니들이 바친 사랑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 손으로 더욱 꽃피워가려는 자강력의 소중한

씩, 자기의것을 제일로 여기고 제힘을 바쳐가려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모두는 물론이고 자라는 아이들의 가슴속에도 자력자강이 뿌리가 되고 생명력이 되어 자리잡고있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은 끝없는 격정으로 뿔뿔였다. 그러던 나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펴주신 자력자강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줄달음쳐온 내 조국의 사변적인 나날들이 언뜻언뜻 떠올랐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제재의 썩은 울바자를 산산이 짓부셔버리며 이 땅에 창조된 자력갱생의 신화들은 정녕 그 얼마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최근에만도 우리 힘으로 세인을 놀래우며 일떠세운 려명거리를 비롯한 여러 거리들과 주택지구들, 피해의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선경으로 변모된 북부지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 경비행기, 화물자동차와 트랙도르들...

정녕 일심단결의 대화원속에서 발양되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원동력을 혁명승리의 근본초석으로 여기시고 그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정력적인 헌신에 의해 내 나라, 내 조국은 승리만을 아로새기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 품에서 자라는 새 세대들도 자력자강을 자양분으로 받아들이며 소중한 꿈을 자래우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우리 아이들은 바로 이렇게 자라고있다. 자기가 사는 고향과 조국땅을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려갈 소중한 꿈을 안고 자라는 아이들이 내 나라 그 어디나 있으니 이제 래일의 우리 조국은 그 얼마나 멋있게 변모될것이며 그 얼마나 강대해질것인가!

환희속에 명상에 잠겼던 나는 서둘러 원고지를 펼쳐들고 글줄을 달리기 시작하였다.